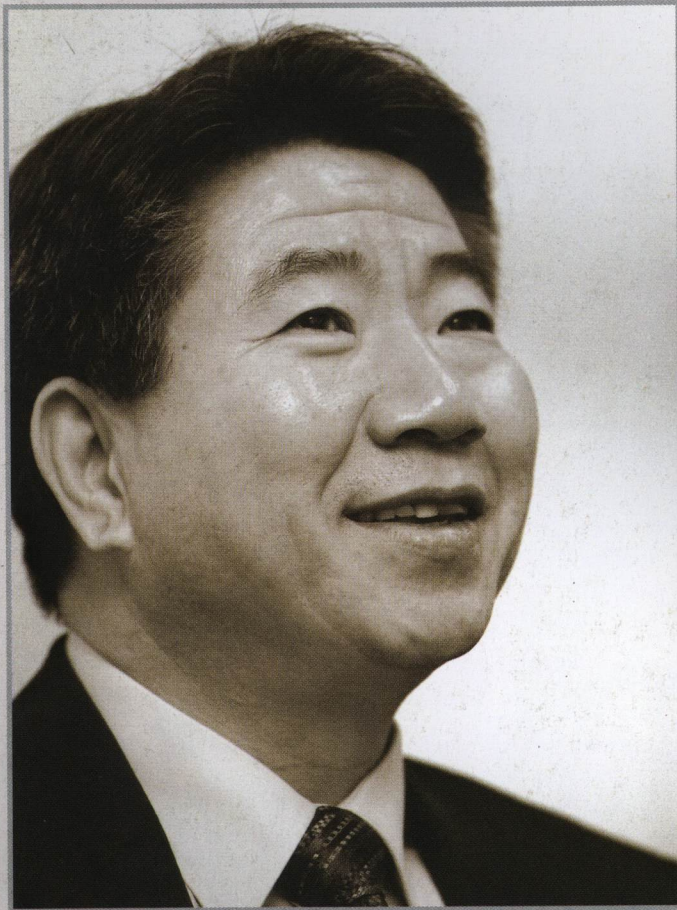


■ 노무현이 나시면 됩니다 ■



■ 노 무 현(盧武鉉)

- 1946년 경남 김해 출생
- 1960년 경남 김해 진영 대창초등학교 졸업
- 1963년 경남 김해 진영중학교 졸업(15회)
- 1966년 부산상업고등학교 졸업(53회)
- 1975년 제17회 사법고시 합격
- 1977년 대전지방법원 판사
- 1978년 변호사
- 1987년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 부산본부 상임집행위원장
- 1988년 제13대 국회의원 (노동위, 농수산위)
- 1993년 통합 민주당 최고위원
- 1993년 (사단법인) 지방자치실무연구소 소장
- 1997년 새정치국민회의 부총재 (현)
- 1998년 제15대 국회의원 (현)
- 1999년 동남지역(부산, 경남, 울산)발전 특별위원장
- 1999년 새정치국민회의 북구·강서구(울)지구당 위원장

연락처

국회의원 노무현 의원실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의원회관 638호
 전화 · 02-788-2928 팩스 · 02-788-3638

후원회 사무실 전화 · 02-761-9081

새정치국민회의 북구·강서구(울)지구당
 부산시 강서구 대저1동 2377-12
 전화 · 051-971-0001 팩스 · 051-971-0117

홈페이지 www.knowhow.or.kr

노무현을 말한다

김기석(농업, 강동동)

“내 고향사람인 노무현의원이 나라와 부산을 위해 일하는 모습이 참으로 자랑스럽습니다”



권명자(주부, 대저동)

“이웃집 아저씨같은 정치인, 언제나 쉽게 가까이 갈 수 있는 정치인이 바로 노무현의원 아니가요?”



성시우(학생, 대저동)

“젊은 사람들은 노무현의원이 바로 우리의 꿈을 대변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노무현이 나시면

됩니다

'서부산' - 부산, 경남 의 새로운 중심

이제 서부산은 새로운 물류의 중심지
생산의 거점으로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지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과연 누가 이 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 노무현의 9대조 선영



● 가덕대교 2004년 완공

● 조정경기장

남해고속도로

대저 1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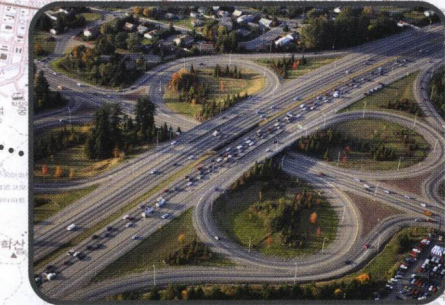
덕선 2동

● 지하철 3호선 건설

● 아시안게임 실내체육관

대저 2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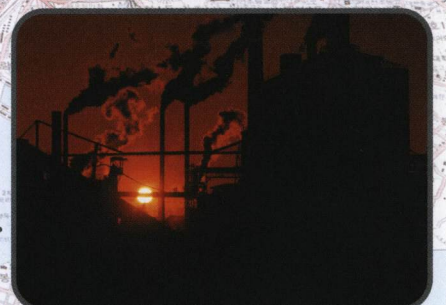
남해고속도로



■ 신규 고속도로 건설 및 재 정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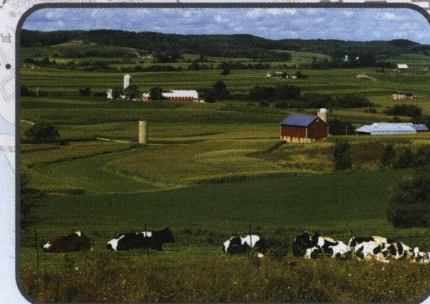
■ 김해국제공항 대대적 확충



■ 북산, 신호공단의 활성화



■ 대규모 부산신항 건설



■ 그린벨트의 전면 재조정

노무현이 해낼 수 있습니다

노무현이 나서서 이렇게 해냈습니다

부산에 돌아온지 10개월만에

- 녹산공단 땅값, 10%를 내렸습니다.
- 삼성자동차 공장 다시 돌아가게 만들었습니다.
- 개발제한구역을 도시계획으로 개발할 수 있게 조정했습니다.
- 신발산업 육성을 위해 4,000억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녹산공단 미분양 용지 10%할인 수의계약 실시
한국토지공사가 미분양된 녹산공단 공장용지에 대해 바겐세일을 실시한다. 16일 토공 부산지사가 분양된 녹산공단 공장용지 평에 대해 연말까지 한시적 재분양가격에서 10% 할인의 분양가격인 평당 61만7백38원으로 환원된다. 녹산공단 공장용지는 공급대상 면적 1백8만7천평 가운데 66만2천평이 분양되어 61%의 분양률을 보였다. 활성화 대책이 나온 8월 1백4개 업체

삼성차 재가동 하루 20대 생산

영업용 우선 출시...범시민비대위 본격 판촉활동
지난해 12월7일 삼성-대우간 비대위 0개월여 가동을 멈춘 삼성자동차가 25일 재생산에 들어간 20대의 SM5를 1호 차량으로 출시했다. 삼성차는 1호 차량을 부산에서 꽃다발 배송사를 갖고

차량 생산이 끝나는 대로 택시용 우선 생산, 삼성차 살리기에 적극적 역할을 한 부산지역 개인택시기사들의 SM5 구입에 보답한다는 계획이다. 삼성차가 재가동에 따라 부산 자동차산업살리기 범시민비대위 대책위원회(위원장 안상영 부산시장)는 오는 29일 오후 5시부터 5일간

동·서부산권 개발계획 구체화 "그린벨트 1,130만평 해제를"

동→북합류양태로, 서→미래산업단지 등 부산시 정부에 건의

부산시는 동부산권 2백30만평, 서부산권 1천1백30만평 등 총 1천360만평 규모의 그린벨트 해제를 건의했다. 동부산권은 4백30만평 규모의 관내신 국제교류센터 등 4개 단지 휴양시설 등이 세워지며, 서부산권은 2백30만평 규모의 테마공원지(2백30만평)는 카운터와 국제적인 이벤트공간으로 조성된다. 또 2백30만평 규모의 미래신산업단지 조성도 추진된다.

부산중소 7천억 추가 지원

김대통령, 녹산산업단지 분양가 인하 약속
김대통령은 16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가진 지역인사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부산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내년도 부산지역 주요 사업 예산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지원 예산을 확대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지원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바람직하다는 판단하에 매각을 추진중"이라고 밝힌후 "부산공공은 매각에도 참여하고 오는 25일부터 재가동을 시작해 가동이 중단되는 사태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녹산산업단지에서 대대선 입주업체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단 전 기공금 시설편'의 1백% (69억)를 2차분 7천억원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발산업육성 예산 4천억 책정

산업자원부, 부산시 건의안 거의 수용
정부보조 1,300억...사업추진 활기찼듯

산업자원부가 '부산 신발산업육성 5개년 계획'에 대해 부산시 건의안 거의 수용하는 선에서 사업추진에 이같은 합의는 원외 위원장실에서 신시가지부장, 녹산산업육성국, 부산시 참석된 가운데 이후 성사업 예산확정에

P K지역 내년 예산확보 청신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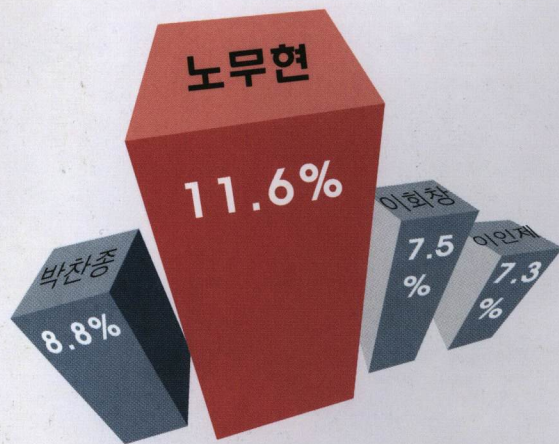
국민회의 당정협의회 개최
특정지역 예산논의는 처음

국민회의는 30일 오전 국회 귀빈실에서 부산-강서-울산지역 예산안확보위원회를 열고 'P K지역 예산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대통령은 "P K지역 예산안 확충을 위해 내년도 P K지역 예산을 확충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오전 귀빈실에서 'P K지역 예산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대통령은 "P K지역 예산안 확충을 위해 내년도 P K지역 예산을 확충하겠다"고 약속했다.

노무현이 나서면 할 수 있습니다.

부산이 키운 인물, 더 큰 일을 해냅니다

김해 진영의 가난한 농민의 아들로 태어나 어렵고 힘들게 자랐습니다.
 사법고시 합격, 판사와 인권변호사로 활동하며 어려운 이웃과 함께 했습니다.
 원칙과 신념의 한 길로 정치1번지 종로구 국회의원 당선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영광과 유혹을 뿌리치고 고향 부산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차세대지도자가 되어 국민들의 꿈과 희망을 대변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 전국적으로 3김씨와 박태준씨를 제외한 정치인 중 선호하는 정치인을 묻는 질의 항목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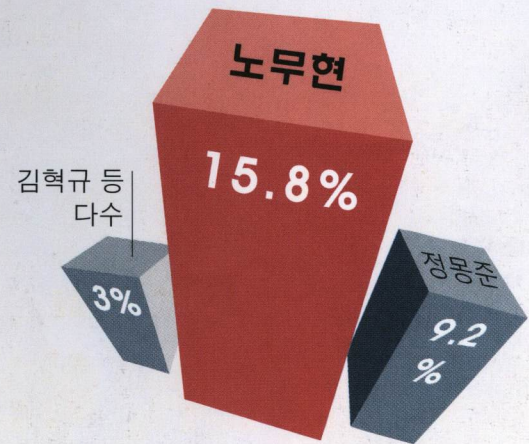
1위	노무현	11.6%
2위	박찬중	8.8%
3위	이회창	7.5%
4위	이인제	7.3%

- 부산일보 99.9월 조사

■ 부산·경남·울산지역출신의 차세대지도자는?

1위	노무현	15.8%
2위	정몽준	9.2%
3위	김혁규 등 다수	3%

- 인텔리서치 99.4월 조사



한겨레 21

1999/7/1
제264호 집 2,500원

대중이 선호하는 차세대 리더십
노무현 1위
 이회창 2위, 이인제 3위

한겨레신문사